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

광주·전남 12개대 2,805명 선발

전국에서는 116개대 2만 8,568명 대학별 기출문제 중심으로 대비를

광주·전남 대학수시 1학기 모집 인원

대학	전형유형별 모집 인원
광주대	일반 74 특별 177
광주여대	일반 88 특별 20
남부대	일반 27 특별 123
대불대	일반 96 특별 152
동신대	특별 251
목포가톨릭대	일반 13
목포대	일반 138 특별 54
순천대	일반 147 특별 129
조선대	특별 807
초당대	일반 99 특별 70
호남대	특별 331
호남신학대	일반 9

수시 1학기 전형 일정

원서접수	2006. 7. 13(목)~7. 22(토)
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06. 7. 23(토)~8. 31(수)
합격자 등록	2006. 9. 4(월)~9. 5(화)

(자료: 한국대학교육협회)

◇지원 전략이 당락 결정=대학마다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수시 1학기

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기 대학·학과 경쟁률이 매우 높다. 학생부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의 성적에 따라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 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를 미리 챙겨 토론회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대비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하향지원으로 수시 1학기에 합격하고 난 뒤 후회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러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소신있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업무상 배임죄 해당

대법원 판결 관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관공비 2천여 만원을 착복하고 출장비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이모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관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은 같은 재산범죄로 형벌의 경중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 4월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개인적으로 2천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출장경비 600여만원을 챙겼으며 연구원이 지급한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연구원에게 44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빛자루로 제자 폭행

광주 광산경찰, 초등 교사 입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생을 빛자루로 때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27일 상해혐의로 광주 E초등학교 이모(57) 교사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께 이 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이모(7)군에게 "신발장을 더럽혔으니 치우라"고 했다가, 이 군이 듣지 않자 플라스틱 빛자루로 머리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 군의 아버지(38)는 이 같은 내용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시판에 올렸으며, 경찰청은 광산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알렸다"고 진술했다.

이 교사는 "순간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했으며, 부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2003년 퇴직했다가 1년여 전부터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은빛 보건의 날' 행사 광주시 북구 양산동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7일 열린 '은빛 보건의 날 행사'. 북구 보건소·현대병원·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65세 이상 주민 100여 명에게 치매 예방·내과·외과·치과·한방 등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식들에 짐 되기 싫어..."

90대 노인 아파트 투신

90대 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

동 모 아파트 11층에 사는 정모(94)씨가 아파트 아래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6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0월 큰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자신들의 부양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형사입건돼 벌금 45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크

2~3인조 강도 기승

광주·전남지역에 2~3인조 강도가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K모텔 205호에 투숙한 2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커피 배달을 나온 다방 여종업원 김모(20·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위협해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이날 오후 8시50분께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김모(여·77)씨 집에 복면한 3인조 강도가 침입, 김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1만원권 10장)과 마늘 3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새벽 0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D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2인조 강도가 들어와 주인 강모(여·43)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여 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연제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세대 중 353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사료공장 인부 4명 부상

27일 오후 1시30분께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S사료공장에서 압축된 볏짚 더미가 무너지면서 밑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47)씨 등 인부 4명이 팔과 이마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담양=채재화기자 jhwaha@kwangju.co.kr

경찰에 맡긴 '15돈종 금목걸이' 어디에

○...시민이 길거리에서 주운 금목걸이를 주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서에 맡겼지만, 이 목걸이가 없어져 경찰이 뒤늦게 수사.

○...2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 윤모(여·40)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택가에서 15돈종 가량의 금목걸이를 주워 북부 경찰서에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겼는데, 2주일 뒤인 지난 21일 윤씨가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았는지 물을 때까지 사건 접수조차 안 됐다는 것.

○...경찰은 뒤늦게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올림픽공원 5대관 방문 광주 MBC 문화방송

정기공연 동곡 800주년 기념

광주 ↔ 울진바타르

이벤트 소개, 공연 정보, 행사 일정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가 담긴 광고입니다.